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후 (3부) 10시 2시
 오후 (4부) 2시 7시 30분
 금요일예배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7시 30분
 오전 (2부) 10시 10시
 오후 (3부) 2시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지적) 8시
 수요일예배 (지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3월 24일 (제682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럼

맛이 간 건 버려라

얼마 전에 맛이 간 음식을 먹고 크게 고생한 적이 있다. 약간 이상하다 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먹고 얼마 지나자 복통과 함께 설사가 쏟아졌다. 이 일을 통해 나는 사람들이든 음식이든 맛이 간 것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사무엘 선지자가 맛이 간 사물로 인하여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단언하신 이유도 알 것 같았다.

'맛이 갔다'는 것은 본래의 맛이 아니고 이상해졌다는 것이다.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변질된 음식은 귀한 재료로 만들었어도 과감히 버려야 하듯, 사람 역시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맛이 갔다고 여겨지면 아낌없이 버려야 한다. 비싼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아깝다고 먹었다가는 나처럼 고생만 진탕하게 될 것이다. '달이 배운 사람인데', '동생인데', '이러면서 맛이 간 사람을 곁에 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 지저리 하게 된다.

맛이 간 통치권자는 국가 발전에 저해 요소다. 아랍권에서 일고 있는 대혁명이 바로 맛이 간 통치권자를 갈아치우는 움직임이다. 역시 맛이 간 정치인들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 국가가 쇠신한다. 맛이 간 임직원들이 있다면 그 기업은 이미 도산날짜를 받아놓은 것이니 그들을 얼른 버려야 기업이 산다. 폐기처분될만한 자동차를 그냥 물론 재량이 있을 것이 뻔한 것 아니겠는가.

'맛이 갔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분수를 모르고 제자리를 이탈한 것이다. 천사장 루시엘이 분수를 모르고 날뛰더니 내침을 받았고, 하갈도 잘 나간다고 분수를 모르더니 광야로 쫓겨났다.

맛이 간 것이 갈 곳은 오직 한 곳, 쓰레기통 속뿐이다. 그러므로 쓰레기통으로 가기 전에 자신을 늘 점검하고, 또한 맛이 간 것은 과감히 버려라.

승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지난 15일 제21회 예루살렘신학교 졸업 및 입학예배가 KBS88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이 예배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의거하여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자는 어떠한 자도 한나나 짚어보려고 한다. 오늘 졸업하는 자나 입학하는 자나 모두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나는 진정 주

를 좇는 자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7). 이 말씀은 곧 자기 생각과 의지와 지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는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 내 의지가 남아 있거든 제발 오지 말라. 두 번째 사랑으로 권면하신 말씀이다.

살아가는 일은 마치 종과부적(衆寡不敵)의 싸움처럼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 자신이 없고, 일사각오의 정신이 없으면 제발 이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 장로나 권사 집사의 길도 있다. 네 번째 권면의 말씀이다.

다섯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33). 주의 종은 세상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한다. 즉 죽고자 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오지 말라. 다섯 번째 권면의 말씀이다.



제21회 예루살렘신학교 졸업 및 입학식

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전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예수님이 뒤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일성(一聲)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6). 주의 종이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즉 본토나 부모나 처자가 종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예수님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쟁에 나가기 전, 자신의 처자를 죽인 계백장군과 같은 마음으로 따라와야 영적 전쟁터에서 장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2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각오가 없다면 이 길은 오지 말라. 이는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사랑으로 권면하신 말씀이다.

셋째,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눅14:28-29). 멋진 집을 지은 후에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집을 짓는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집을 짓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길은 갈 수가 없다.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없다면 이 길은 오지 말라.

넷째,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라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전을 청할찌니라'(눅14:31-32). 이는 주의 종의 길이 녹록치 않음을 뜻하신 말씀이다. 주의 종으로

여섯째,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눅14:34). 도중에 흐지부지해서 맛이 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갈 정신이 없거든 오지마라.

예수님은 사랑이신데로 이렇게 권면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눅18:29-30)고도 하셨다. 주의 종의 길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배의 축복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으로 권면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 몸이 각 지체가 있듯, 교회를 지탱하는 역량이 다양함을 잊지 말라."

오늘 졸업하는 자나 입학하는 자가 모두 이 말씀을 심비에 새기길 바란다.



이초석 목사 필리핀 집회

▶일시: 2013년 4월 1일(월)~8일(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4:12~21)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라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귀신이 가라, 가라, 가라.” 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위하여 예비된 축복아 와라, 건강아 와라, 지혜아 와라, 행복아 와라, 와라, 와라, 와라.” 하고 명령합니다. 제가 개찰한,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것이지요. 처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건가?” 하겠지만, 사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천사를 명령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 것을 명령하면 모든 것이 OK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만물과 만인, 악한 것들까지 다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1:12). 덧붙여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행1:8)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회개하고 사모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당신의 권세를 다 이양하셨는데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28:18),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

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를 아십니까? 그는 계급에 짓눌리고 폭정에 시달리는 조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한 자입니다. 그러나 인간 박문수는 아무 힘도,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가 이집 저집 기웃거리며 민심을 살피려할 때, 애매한 오해도 받고, 문전박대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패를 꺼내들자 그동안 악행을 일삼던 수령들이 그 앞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처분을 기다리며 떨떨 떨었던 것입니다. 마패가 무엇입니까? 왕

니다. 이 악한 마귀는 자신의 줄개인 귀신들을 인간에게 투입하여 인간으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케 한 것도 마귀요(창3:1~7),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한 것도 마귀입니다. 또 마귀는 인간들을 병들게 하고 죽입니다. 병어리 되고 귀먹게 한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비에게 예수님은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막9:25)고 하였고, 간질을 앓고 있는 자에게 귀신을 쫓으니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마17:14~18). 그리고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내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요8:44). 또 간음하게 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마귀로 인해 욕의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욥2:4). 또한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후11:3),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기도 합니다(렐4:26~27).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하는 귀신은 절대 총으로 죽지 않습니다. 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왕파리라도 예프 킬러를 뿌리면 죽듯, 제 아무리 큰 곰일지라도 총 맞으면 나가떨어지듯, 예수님 앞에 마귀와 그의 추종자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의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고, 바울이 접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집회에 가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하나님의 살아계실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입증하고 있

도적을 소탕하면 평안이오고 간첩을 잡아내면 평화가온다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3:8). 마귀의 일, 즉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며,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미워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히여 지리라 하라”(눅13:32).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갔으니라”(요14:12).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총을 쏘면 곰도 잡고, 호랑이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이 있는데 산짐승에게 잡혀 먹힌 자는 여러척은 자입니다. 돈이 있는데 굶어죽는 자 역시 여러척은 자입니다. 총의 권세, 돈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싶으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 하는도다 하더라”(막1:27). 할렐루야!

명령에 순종하라 책임은 주인이 진다

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아, 가라.” 하고 명령하십시오. 병을 앓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라.”고 명령하고, 하는 일마다 꼬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마다 꼬이게 하는 귀신아, 가라.”고 명령하십시오. 남편이 바람을 뒀습니까? 그것도 명령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피우게 하는 귀신아, 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총 속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으면 총알이 나가 과녁을 뚫듯, 예수 이름이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명령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고, 일이 잘 안 됩니까? 그것은 총구가 녹아 슬어서 그런 겁니다. 총구가 녹슬면 절대 총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객원컬럼::

귀가 막히면 소용없다

90년대 초 처음 캐나다 토론토 집회에 갔을 때의 일이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목사님이 부르셨다.

“지금 내가 가장 번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니?”

나는 당연히 교회와 선교 등 목사님의 사역에 관한 일이겠거니 하고 별 생각 없이 답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목사님은 내 답에 대해 가타부타 아무 말 없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고 번민하며 풀고자 하는 일은 내 직원들, 나를 도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도록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거다.”

솔직히 좀 놀랐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로서는 목사님이 오직 교회 부흥과 선교사역에 골몰해신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0여 년 넘게 목사님을 모시며 느끼는 점은 지금도 목사님은 그 생각에 골몰해 계신다는 것이다. 그것은 변함없는 목사님의 기도제목이기도 하다. 꼭 교역자나 교회직원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목회하시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목사님과 인연을 맺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잊지 않고 기도하신다. 그러기에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기를 부은 목사, 장로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끝장을 하시고 한다. 아마 그 심정은 가까에서 보지 못하면 알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목사님이 그러시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었으니까 말이다.

이번 고평탈라 집회에서도 지난 말라까

판 집회를 도왔던 고평탈라 제2의 재벌 후안이 마약 및 무기밀매로 군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은 백방으로 그를 도우려 애쓰는 모습이셨다. 그의 가족과 변호사를 불러 실상을 파악하고, 대통령 아들에게도 그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겠지만, 미국으로 압송되는 일은 없도록 힘써줄 것을 부탁하셨다. 그리고 옥에 있는 그에게 전화하여 간절히 기도해주시는 모습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부디 하나님께서 후안이 비록 중죄인이지만, 말라까판 집회를 적극 돕고 하나님의 종을 왕처럼 대접했던 일을 추억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길 함께 기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왔다가 떠나곤 했다. 처음 목사님을 만나 뜨거웠던 그들은 아낌없이 물질을 쓰며 목사님을 기쁘게 했고, 목사님 옆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 물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니면 될 듯 될 듯하면서도 뭔가 풀리지 않으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하여 넘치도록 축복해주시건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을 도우며 열심을 내었다해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하며 소리친다 해도, 귀가 막힌 채로 현실에 돌아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심으로 종을 대접하고, 종을 도와 일했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깨닫기를 갈망하고 기다리신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면 복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집, 자존심에 얽매어 변화하지 않으면 고통의 시간은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 해도 눈과 귀가 막히면 지혜를 얻을 수 없는 법이다.

나 또한 너무도 부족함을 절감한다. 해와에 나가 만난 회원들이나 외국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에 크게 깨닫고 삶에 실천하며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간증을 듣노라면, 큰 도전과 함께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고 인내해주셨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도와 지금까지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나를 여전히 격려해 주시고 신뢰해주시는 목사님, 집회에 다녀오면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하며 인사해주는 성도님들, 나는 그저 감사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마치 복권 당첨된 것처럼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열한 천사들의 환호 속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내 것이 되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 더욱 열심을 내야한다.

한은택 전도사

레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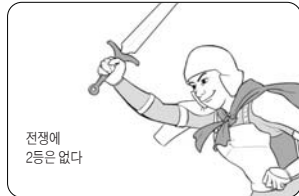
영적 전쟁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승리하라



전쟁에 2등은 없다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JC Academy series

성공은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13일, 고평탈라 집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오신 총회장 목사님께서 성공을 위해 '준비에 철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을 깨우셨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공은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내 꿈과 소망의 열도는 성공, 응답과 정비례하므로 가장 먼저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 마음, 환경의 짐을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짐이 무거우면 결코 멀리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 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눅14:26). 또한 20, 30대는 부지런히 발을 갈고 씨앗을 뿌릴 때이다. 그릇은 자의 발은 잡초만 무성할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 나가는 것을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혼·육으로 철저히 준비한 자는 혹독한 추위도, 그 어떤 사나운 짐승도 결코 두렵지 않다.

젊은이들이여, 성공이라는 것은 오직 도전, 인내와 끈기, 노력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산다. 젊은 시기에 낭만이나 즐기며

시간을 보낸 자가 어떻게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든 과정 과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 자만이 단 열매를 딸 수 있다. 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히12:2).

이 뿐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예스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 성공한 모든 자는 이렇듯 목적을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수, 즉 인내와 끈기의 지수(AQ)이다. 후일의 영광을 위해서는 능히 그 고통을 참으며, 오히려 그 고난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흔히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성공자는 눈빛부터 살아있다. 또 그들은 뒤돌아볼 시간조차 없다고 말할 만큼 매사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고, 어기저기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돌맹이를 받

아 들레에 담장을 쌓는다. 나 역시 문제와 두려움을 천구 삼은 지 오래다.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하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난공사에 이익이 많고, 문제 속에 기적이 따라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남들 놀 때 부지런히 발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소독하라. 여러분이 품은 꿈, 주어진 목적을 향해 무던 철 연장을 날마다 갈아야 성공할 수 있다(전10:10).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때 철저히 준비하여 그 아들 대에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또한 매사에 준비와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어찌 각 분야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시기 바란다. 그러면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모두 인정받고 최고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꿈을 꾸는 것도, 매사에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도 최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육의 승리와 성공을 두 팔 가득 안아드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국진 기자



귀를 기울이세요



북한이 지난 11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탱해온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판문점대표부 운영을 중지시키고 북미 간(軍)전화를 차단하는 등 긴장감을 조성하며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전방 부대에 정사정포를 전진 배치하는 한편, 대외 방송으로는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해와 외신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안에 연평도 사건과 같은 극도대발을 또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혀 의외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 개발과 군사 도발로 우리와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것이 바로 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가 한 마리의 주도권 싸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쳐서 우리를 위협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마귀도, 전쟁도, 죽음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신재식 전도사

우리는 천국 문화를 따라야 한다

저녁이 되자 기온은 급강하했다. 해발 3천m 고산지대 알몰롱가(Almolonga)의 밤은 뱃속까지 추위가 밀려들었다. 집회장은 마리아노 목사의 교회 앞으로 뻗은 중앙도로 양쪽을 차단하여 마련해놓았다. 중앙도로가 좁아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추위에 사람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었기에 목사님은 힘찬 찬양으로 집회의 문을 여었다. "Poderoso(능력자)"라는 스페인어 찬양인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을 듣고, 병어리가 말을 하며, 앓은 병이가 일어나는 능력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찬양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회중 속에서 귀신들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에게 문지방을 견고히 하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시편 147편의 역사,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난 사무엘상 16장의 역사, 찬양할 때 육몬이 타진 사도행전 16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악한 귀신들이 진멸되는 현장에는 이스라엘의 양각 나팔이 동원되어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발 3천m에서 숨이 차는 지도 모른 채 1시간 이상을 찬양을 하며 뛰었다.

목사님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그 이름이 비밀을 선포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명하세요. 예수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명령할 때, 만물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기에 그 이름으로 말하기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요, 친구입니다."

모두가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다. 그리고 모두 함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데모니오 푸에라! 데모니오 푸에라!(귀신아, 가라!)" 하늘이 떠나갈 듯 밤바늘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혼비백산 일곱 길로 떠나갔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병어리가 말하며,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이어졌다.

이튿날 이어진 실업인 세미나는 마치 무도회가 열릴 법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마리아노 목사의 스케일이 여실히 느껴지는 선택이었다. 목사님은 '천국 시민은 천국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오늘 아침, 우리 팀과 이야기하다 참으로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한국 문화와 아메리카 문화가 달라서 부

부가 각자의 재산을 갖고 서로 간섭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가 어떠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가 이혼할 것을 전제로 각자의 주머니를 차고 서로 터치하지 못한다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이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물질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맡기지 못한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옛말에 부장부수(夫唱婦隨)라 했습니다. 남편이 도둑질하면 아내는 망분다고 할 정도로 부부가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천국문화입니다. 아메리카 문화가 어머니 하며 그러려니 하는 풍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앞장서서 이 땅의 그릇된 문화를 질타하고 올바른 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리아노 목사 부부의 50년 금슬은 목사님 설교의 확증이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단다. 그의 8남매 자녀들도 결혼해서 부부 싸움을 모르고 산단다. 싸우는 것을 보지 않았으니 당연하다는 것이다.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질문명

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선진사회에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관계로 정신세계가 황폐해가는 오늘날, 순수한 인디언들이 보여준 삶의 지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었다.

모든 집회를 마치고 과테말라시(Guatemala City)로 돌아오신 목사님을 위해 대통령의 아들 오토(Otto Perez) 시장은 우리 일행을 호텔로 초치하여 만찬을 베풀어주었다. 그들 부부는 목사님께 과테말라의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고견을 듣고 싶어 했다. 목사님은 오토 시장에게 학교현장의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광고할 것을 조언하시고, 주변에 인제들을 모아 이 나라를 성장,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셨다.

오토 시장은 목사님께 명예시민증서를 전달하며 언제든지 과테말라에 오시면 시정부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과테말라 집회를 위해 금식하며 합심으로 기도해준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Edu Section::

백년지계 막여수인 (百年之計 莫如樹人)

"백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다." 라는 이 구절은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 할 때, 흔히들 입시 교육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필요한 교육은 실로 다양하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평생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평생교육이란 한 사람의 생애 동안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망라하여 연령에 한정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교육으로 조직화되어야 하는 것을 이른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제2, 제3의 직업을 위한 기술 습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 큰 맥락에서 평생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입시 교육은 지나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비판대에 올라있고, 그에 따라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열의가 본의 아니게 사그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녀의 적성에 맞는 학습 방식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

청소년기에 입시 교육만큼 또 중요한 교육은 바로 가정교육이다. 우리가 공동체로 구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갖추어 스스로를 지키며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품행인 예의범절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

절부터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가능한 것이다. 특히,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예의범절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배워야 할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인간의 개인화, 익명화 등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두드러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하게 조성되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익명성에서 자신의 존재가 노출될까봐 꺼려지게 된다. 내 공간이나 내 시간에 타인이 개입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된다. 각종 SNS와 스마트폰으로 사회와 교감을 나누기 때문에 직접 사람과 대면하는 시간은 더 줄어든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예의범절에 대한 개념을 희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 개인이 모여 하나의 사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더 윤택하고 화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매너와 에티켓이 필요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가 필요하다.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나의 지식과 부를 위한 교육이 아닌, 이웃과 사회를 위한 교육. 그것이 바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평생교육이다.

학원장 오지유 집사